

제 七 장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

사 방 바 람 (전 쟁)

「이 후에 내가 보매 네 천사가 씨 네 모퉁이에 서서 씨의 사방바람을 못 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씨와 바다와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씨와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든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불러 가르대 「씨이나 바다이나 나무나 해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치기를 기다리라 하더라」

六 장 마지막 절까지에 이미 여섯째 인시대에 잇을 사실이 다 기재된 듯 십다。 그러면 이 제는 님곱재 인에 대한 기록이 잇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 七 장에는 님곱재인에 관한 기록은 없고 한 특별한 사실이 기록되었으니 곳 네 천사가 씨 네 모퉁이에 서서 씨의 사방바람을 못 잡아 붙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천사가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치는 일을 행하는 그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아직 님곱재인이 시작되기 전에 잇는 일인즉 여섯째 인시대에 잇을 일인 것은 틀림없다。

성경에 바람은 혼이 전쟁을 표상하야 말하였는데 (렘 廿五〇卅二참고) 네 천사가 씨의 사방 바람을 못 잡는다 하는 것은 세계 각국 사이에 잇는 전쟁을 이어나지 못하도록 못



사 천는치인의탑나하 온라올러부로되는듯히

권세를 어든 네 천사를 향하여 큰소리로 불러가르
 대 써이나 바다이나 나무나 해하지말고 우리가 우
 리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치기를 기다리라 하였
 다. 「무릇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시百三〇
 二、廿一) 「구원어늘 후사를 위하여 성기라고」(히
 一〇十四) 보내심을 입는자들이니 그들이 항상 이세
 상에 이러나는 여러가지 사변을 지배하는 것이다. 여
 귀에 말한 네 천사도 전쟁을 표상한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복음사업이 그로 말미암아
 막히지 안도록하는 큰 책임을 졌다.

그런데 「바람을 붙잡는다」는 말을 보면 전쟁이 전
 혀 업도록하는 의미가 아니라 소란과 전쟁이 한창
 격렬하거나 쓰는 열국사이에 반목질사와 분노가 충
 만하여 장차 대전란을 이르키라는 위협한 시기에 갑
 작이 그 전쟁을 정지시키고 그 분노를 그치게 하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八
 十년간은 바로 그러한 상태로 지나왔나니 一八四八
 년의 구라피의 형편이라든지 그외의 세계각국에 잇

든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붓드는 리유는 썩와 나무에 붙지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종
 의 이마에 인치는일에 방해를 받지안키 위함이다. 그 인치는 천사에 대하여 조선성경에
 는 「해 뜻은대로부러 올라온다」 하였는바 이말은 어떤 번역에는 「아침해가 올라오는것처
 량 나락난다」고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말은 천사의 나락나는 장소를 표시하는것보다도
 천사의 나락나는 현상을 표시한것이다.

그러면 아침해가 올라오는것처럼 올라오는 천사는 무엇을 가리친인가? 이것은 한 특
 별한 운동을 표상한것이니 이 운동은 여섯재인이 마치고전 곳 하늘이 옮겨가고 모든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움직이는일이 잇기전에 잇을것임은 추측하기에 어려울것임은바이다.
 그런데 一八三三년十一月十三일에 별이 썩러지는일이 잇은후로 구원바들자를 택하는 한
 운동이 이르났으니 이것이 묵시十四장에 기록된 세 천사의 괴별을 전하는 특별한 운동
 이다. 이 운동이 시작할때에는 비록 새벽 해빛과가리 아조 미약하게 시작하였을지라도
 점점 진행함을 썩타서는 큰 능력으로 발전되어 나아가나니 마치 해버티 대나제 온세
 계를 두루 비치는것처럼 이 운동이 세계각국에 충만하여질것이다. 그런데 묵시록에 기
 록된 세천사의 괴별의 마지막 결사를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귀 보이니 저희는 하나
 님의 계명과 예수의 도리를 지키는자니라」하였다. 그러므로 마지막시대, 바로 예수재림
 하시기전시대에 잇을 이 세 천사의 괴별을 전하는 큰 운동은 특별히 남은백성을 불러 하
 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도리를 지키므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게 하는것이다.
 「천사가 해뜻는대로부러 올라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썩와 바다를 해롭게할

은 형편은 과연 위대한 현상으로 내려왔다. 무서운 대혼란상태가 이리 날듯한 위험은 바야흐로 절박하여 누구나 말하기를 세계적 대전쟁은 이리나고야 말 것이라고 하며 그 중 무엇이 어찌될것은 도모지 예측할수 없는바라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가 이르렀을때마다 이상한 모양으로 그 위험은 제거되고 모든 소란한것이 종식되어 마침내 평온한상태를 회복하군 하였다. 가령 말하면 보불(普佛) 전쟁(一八七一)이라든가 로로(露土) 전쟁(一八七八)이라든가 미서(米西) 전쟁(一八九八)이라든가 일로(日露) 전쟁(一九〇五)가든 모든 전쟁도 다 주위환경이 매우 위험하여 더욱 어지러운 상태를 이르기라할즈음에 돌연히 휴전이 성립되게 된것이다. 이것은 과연 세천사의 개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치는일이 방해를 받지아니하고 속히 마치고를 위함이다. 그러나 이 전쟁을 막는일은 언제까지나 계속될일이 아니오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치는일이 마치기를 기다리는것이다. 이일이 마치면 네 천사는 사랑바람을 늦는 동시에 세계 종말의 『아마겟돈』 대전쟁이 이리날것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연구하는때에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친다」는것을 좀더 깊히 연구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이며 「친다」는것은 무엇을 니를 인가? 「하나님의인」은 하나님의 신분과 권위와 능력을 표시하는 그의 이름이 귀입된 것이라야 할것이오 「친다」는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되고 표가 되는것을 니를 이다. 참하나님 곳 조물주의 이름이 포함된 인은 하나님의 열가지 계명중 넷째계명이 다. 이 계명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교회의 하나님의 신분과 권위와 능력을 충

분히 드러내었다. 하나님의 열가지 계명가운데 만일 이 넷째계명이 엄성을진대 아모 다른 종교신도가 계명에 말한 하나님을 저이의 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도리가 없는것이다. 또한 그들이 넷째계명 외에는 다른 계명을 지키면서도 태양이나 강하나 소나 기라의 증상을 저의 신으로 위할수가 있는것이다. 그러나 넷째계명에 천지를 창조하신 참하나님 오직 한분이신 조물주를 분명히 가리켰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씨인』(署名)이오 그의 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그 백성사이에 안식일을 지키는것으로 영원한 증거와 표를 삼으신것이다. (겔二一〇十二、二十、출卅一〇十三참고) 곳 이 안식일을 지키고 아니하는것으로 말미암아 참하나님을 경배하는자와 다른 신을 경배하는자 사이에 확실한 분간이 드러나게 되는것이다.

그런즉 안식일을 지키는것은 가장 중대한 의미를 가진것이니 이를 등한시할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 안식일을 지키는것은 제七日마다 레배당에 출석하는것만으로 족한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범죄한바를 사유하여 주시는 구주이신것을 미더야 할것이다. 대저 인치심을 받는것은 사람의 마음과 행함으로 될수있는것이 아니오 오직 성신으로 말미암아서만 될수있는것이니 성신께서 가르사대 「내가 내 룰법을 저희속에 두고 그 마음에 사이라」(렘卅一〇卅三) 하셨다.

인마진十四만四천인

「내가 인마진자의 수를 드르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중에 인마진수가 十四

만四千이니 『유다』 지파중에 인 마진자가 一만二千이오 『르우벤』 지파중에 一만二千이오 『간』 지파중에 一만二千이오 『아셀』 지파중에 一만二千이오 『납달리』 지파중에 一만二千이오 『므나세』 지파중에 一만二千이오 『시므온』 지파중에 一만二千이오 『레위』 지파중에 一만二千이오 『잇사갈』 지파중에 一만二千이오 『스블론』 지파중에 一만二千이오 『요셉』 지파중에 一만二千이오 『벤야민』 지파중에 인 마진자가 一만二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중에 인 마진수가 十四만四千이라 하였나니 그러므로 여쭙는 생각하기를 이는 『이스라엘』의 十二지파를 가리침이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을 가리친것은 아니라 한다. 그러나 여긔 말한 인 마진수로 말하면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된자를 가리친것이 아니오 스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된자를 가리침이니 『대개』 외모로 『유대』 인되는것이 『유대』 인이 아니오 외모로 육신의 할례를 받는것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속으로 『유대』 인되는것이 『유대』 인이다 (로二(廿八, 廿九) 『이스라엘』로 난자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오 또한 『야부라함』의 씨가 다 그 자손이 아니라 오직 『이삭』 으로부터 난 씨라야 너희 자녀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허락한 자녀가 될수잇나뇨? 닐렸으대 「너희가 다 그 九〇六(一八) 그러면 어찌케 하므로 허락한 자녀가 될수잇나뇨? 닐렸으대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대개 칭례를 바다 그리스도로 더 부리 함한자들은 그리스도를 옷입듯 하였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자면 곳 『야부라함』의 자손이오 허락하신대로 귀업을 이을자니라」 (갈三(廿六-廿九) 하였나니. 그리

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참 믿는자는 곳 참 『이스라엘』 자손이니 허락하신바 새 『예루살렘』의 귀업을 이을자이다.

그런데 「모든 지파중에」 인 마진수가 十四만四千인이 될것이라고 하였는바 이 말씀으로 비록 참 그리스도인이로라 하고 참안직일을 지키노라 하는자 가운데서도 성신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인이 그 이마에 박힐자는 오직 十四만四千인밖에 안될것을 알것이다. 이 인치는 일은 셋재천사의 귀별이 전파되기 시작한 一八四四년부터 시작되었는바 에스겔九장三、四절에도 인치는일에 관한 기록이 잇다.

구속함을받는자의소리

「이 일 후에 내가 보매 큰 무리가 잇는데 아모나 능히 헬수가 입스니 이는 각나라와 모든 족속과 백성과 지방에서 온자라 보좌압과 어린양 압해 서서 몸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잡고 큰소리로 불러가르대 구원하심이여 보좌에 앉지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이시로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령물을 둘러 섰다가 보좌압해 업드려 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야 가르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을 다 우리 하나님께



하 나 남 의 인

세세에 돌릴지이다 아멘 하더라 장로중에 하나이 응답하야 내게 이르대 이 흰옷
 입은자들이 누구며 또 어대서 왔나뇨 하기로 내가 이르대 내 주인이여 당신이 알
 리이다 하니 그가 나다려 이르대 이는 큰 환난가운데서 온자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 하였는지라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압헤 있고 또 그 성
 전에서 밤낮 성기매 보좌에 안지신이가 장막으로 그 우를 덮호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 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모 쓰거유괴음이 상하지못할지라
 이는 보좌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
 나님께서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어 주심이라

인치는일이 마친다음에 『요한』은 헬수업는 무리가 하나님외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
 을 찬송하는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 무리는 각나라와 모든 족속과 백성과 지방에서 온
 자라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실로써 보건대 인치는일이 마치는때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알수잇는바이다. 그 헬수업는 무리는 곳 각시대의 여러나라와 족속가운데
 서 구원을 바를자들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때에 죽은가운데서 부활하야 그리스도로 더
 부러 승천할자이다.

그후에 『요한』이 한 다른 무리가 씻는것을 보았는데 장로중에 하나이 『요한』에게 이르
 대「이 흰옷입은자들이 누구며 또 어대서 왔나뇨」하니 『요한』은「내 주인이여 당신이
 알리이다」하야 자기는 그들이 누구인지 아지못하는것을 표시하였다. 그러면 이 흰옷입
 은무리는 九절에 말한 흰옷입은 무리와는 갓지아니한 무리인것을 알수잇으니 九절에 말

한 무리는 『요한』이 이미 어대서 온 무리인것을 아는리이다. 그러면 이 무리는 헬수업
 는 무리와는 구별된 특별한 무리인것을 알수잇는바 장로가 이르대「큰 환난가운데서 온
 자라」하였다. 이 무리는 본장하두에 말한바 十四만四천명이니 곳 하나님의 계명과 예
 수의 도리를 지키는 그의 남은 백성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마진자요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한자들이다. 과연 그들은 세상 마지막에 잇을「개구
 이래로 업는 고난」가운데서 온자들이니(단十二〇) 곳 『야곱』의 환난을 맛볼자들이오
 (렘三十一〇四一七) 마지막 날엽 재앙이 나릴때에 대언자업시 설자들이다. 그러나 十六절의
 말씀은 보면 그들이 날엽 재앙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바를것을 알수잇는바이다. 그리고 하
 나님의 인마진자가운데서 이미 잘든자들도 잇으나 그들이 예수재림하시기 조곰전에 췌
 어이러나(단十二〇二,三) 큰 환난을 맛볼것이오 살아서 구원함을 바를것이다. 그때에는
 하늘보좌에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외 또
 한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어 주실것이다.